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18호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향토문화 유산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전을 통하여 지역 향토문화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유산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24,
FAX 042-600-5029, E-mail : jsjygal@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색과 가치유형별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문화유산지원심의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종무문화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보존·관리가 필요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